

2021학년도 정시모집 실기(면접)고사 기출문제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디자인학부, 무대미술전공	발상과표현	(문제 은행 35번) 친환경과 유기농을 발상·표현하시오.	
	기초디자인	(문제은행 30번) 인쇄물로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자유롭게 구성·디자인하시오. **주의사항** 1. 제공된 사물 이외의 형상은 표현하지 말 것. 2. 제공된 사물의 색 이외는 사용하지 말 것. 3. 제공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표현하는 것은 무방함. 4. 재료는 자유롭게 선택할 것. 5. 화지방향은 가로로만 할 것.	
영화영상전공 (연기)	실기 고사 [지정 연기]	소재	들어봐요.. 사실 무서웠어요.. 무섭고 떨리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어떻게 만든 인연인에 망가트려요.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나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게 때때로 억울하고 아니 하루 내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하면 되잖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면 되잖아.
		소재	우리 처음 만날 날 왜 그렇게 슬프게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 힘들 때 있잖아요? 혼자 울지말고..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 딱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울고싶어도 절대로 혼자 울지 마세요... ... 마음이 추접스럽잖아요. 혼자 울면은... 꼭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서는 안 울겠다고
		소재	“방은 저 구석방인데 침대도 있어요. 혼자 주무시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한 달에 삼백 불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방을 쓸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집에 누굴 데리고 오거나 손님을 초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세탁기가 있으니 빨래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든다) 이것이 이 아파트의 열쇠예요. 오늘부터 우린 부부가 되었으니까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결혼식은 라스베가스에서 올리기로 해요. 이번 주말에 출발하죠. 미리 말해두지만 드는 비용과 신혼 여행비는 당신이 부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오늘부터 우린 부부예요. 자 축배를 떨어요.” (잔을 들어올린다)

모집단위	종 목	문 제
연극전공 (연기)	실기 고사 [화술]	<p>소재</p> <p>사람들이 왜 춤을 추는지 아니? 사실 우리는 모두 춤을 추고 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살기위해서는 누구나 몸부림을 쳐야 하거든. 숨 쉬는 것부터가 몸부림이지. 손짓, 발짓. 입술도, 눈꺼풀도 춤을 추지. 울고 있는 사람의 어깨도, 기쁨에 겨워 꺾충 꺾충 뛰는 사람도. 힘든 하루를 잊기 위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아니? 화가 나서 온 몸을 부르르 떨며 발을 구르는 사람들의 몸짓이 얼마나 화려한 지 알아? 치열하게, 슬프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우리는 다 그렇게 춤을 추며 사는거야</p>
		<p>소재</p> <p>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커피를 쏟은 건 그쪽인데 어떡해야 될지 왜 내가 생각해요! 잘못은 그쪽이 해 놓고 왜 나한테...(울고 싶어도, 정신차리고) 난 십분 후 면접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외투 벗으세요. 내가 먼저 면접 보고, 옷 돌려줄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저기요, 커피잔 들고 화장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손에 든 커피, 여기 다 넣어주세요! 취직 못 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불쌍한 인생들끼리 서로 초 치지 맙시다!</p>
		<p>소재</p> <p>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저에게 심판의 날이 왔으며, 제 몸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탕한 사람에게 끝이 온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고해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의 피에 관한한 전 절대로 죄가 없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지만 선을 사랑했고, 매 순간 개과천선하고 살고자 노력했지만 금수처럼 살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신다면... 저도 저에게 저의 하느님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p>
		<p>소재</p> <p>원고와 피고! 재판부는 여러분의 사건을 청취했습니다만 누가 이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본인은 재판관으로서 이 아이에게 어머니를 찾아줄 책임을 지고 있지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백묵으로 그려진 원이 있습니다. 아이를 그 안에 데려다 놓으세요. (새우박가 미헬을 원 안에 세워놓는다. 아이가 그루쎬를 보고 웃는다) 원고와 피고, 원 양 쪽 옆에서 서세요! (총독 부인과 그루쎬가 원 곁으로 간다) 두 사람은 각각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으세요. 진실된 어머니란 힘을 갖게 마련이지요. 원에서 아이를 끌어내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자 어서 아이를 끌어내 보세요.</p>
디지털만화영상전공	만화 능력 테스트	<p>소재</p> <p>전제: '어디든 생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열쇠(Key)가 있다 제한: 상상하는 곳은 과거에 가 본적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문(Door)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열쇠와 문의 형태는 자유로우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에 위의 열쇠를 이용해서 열면 본인이 생각하는 곳으로 연결된다. 만화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4칸 이상으로 연출하십시오.</p>